

# 매개체 전파 감염병

최영화 |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감염내과학교실

## Vector-borne infectious diseases

Young Hwa Choi, MD

Department of Infectious Diseases, Ajou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Suwon, Korea

전 세계적으로 매년 약 10억 명의 매개체 전파 감염병 환자가 발생하고 있다. 이는 전체 감염병 환자 수의 약 17%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중 약 1백만 명이 사망하고 있다[1]. 매개체 전파 감염병은 환경적 요인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 도시화, 기후변화에 따른 매개체 서식 환경의 변화 등과 함께 무역, 여행객들에 의한 국가 간 교류의 증가는 이러한 질병의 증가와 빠른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모기, 진드기, 파리, 벼룩 등이 대표적인 매개체이며 특히 모기매개 질환인 말라리아, 뎅기열, 치쿤구니아열, 지카바이러스 감염, 황열, 웨스트나일열 등은 열대 지역에서 크게 유행하면서 점차 매개모기가 서식하는 아열대, 온대지역으로도 서서히 확산되고 있다. 진드기매개 감염병에는 우리나라 가을철 대표 질환인 쯔쯔가무시병 외에도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라임병, 크리미안-콩고 출혈열, 진드기매개뇌염 등이 포함되는데 모기와 마찬가지로 진드기 서식지의 변화로 발생지역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매개체 전파 감염병은 황열과

진드기매개뇌염 외에는 아직 효과적인 백신이 개발되어 있지 않고(뎅기열 백신은 개발되었으나 제한된 국가에서만 사용되고 있다) 특히 바이러스 질환들은 치료약물도 아직 없어 예방이 중요한데 해외여행의 증가로 국내 발생 질환 외에도 해외 발생 질환에 대한 현황, 역학적 변화 등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

본 특집에서는 매개체 전파 감염병의 최신 국내의 동향을 점검하고, 국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모기매개 감염병의 현황과 전망에 대해 살펴보고 국내 서식 매개체의 생태학적 특성과 현황을 다루었다. 말라리아와 일본뇌염은 오래 전부터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던 질환이었으나 모두 1970년대 이후 사라졌거나 거의 사라졌다. 그러나 말라리아는 1993년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일본뇌염은 2010년 이후 환자가 증가하고 있다. 해외유입 모기매개 질환인 뎅기열과 웨스트나일열, 지카바이러스감염증은 여행객의 증가와 함께 앞으로 더 많은 해외유입 사례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현재까지 국내 발생현황을 분석하였다[2,3]. 또한 우리나라의 가을철 대표적인 매개체 감염병인 쯔쯔가무시증과 중국에서 처음 보고된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의 국내의 발생 현황과 우리나라 환자들의 역학적 특성을 서술하였다[2,4]. 모기매개 감염병은 전 세계적으로 뎅기열이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남태평양 섬나라에서 유행하던 지카바

Received: April 29, 2017 Accepted: May 7, 2017

Corresponding author: Young Hwa Choi  
E-mail: yhwa1805@ajou.ac.kr

© Korean Medical Association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이러스감염증이 2015-2016년 브라질을 중심으로 중앙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 여러 국가에서 크게 유행하였고 올해 인도에서 환자가 발생하여 아시아 지역에서의 유행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이들 지역은 우리 국민들이 가장 많이 찾는 지역으로 해외유입 사례의 지속적 발생, 질병매개모기의 전국적 분포, 그리고 가속화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기후변화는 일본 동경에서 발생한 뎅기열 유행과 같이 우리나라에서도 이들 질환이 유행할 수 있고 토착화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3]. 이러한 질병을 이해하고 적절한 예방정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매개체에 대한 이해가 대단히 중요하고 필수적이다. 우리나라에도 다양한 종류의 감염병 매개체가 서식하고 있는데 특히 이번 특집을 통해 얼룩날개모기, 빨간집모기, 흰줄숲모기 외 기타 숲모기들, 털진드기와 참진드기의 생태학적 특성과 분포에 대해 이해할 수 있으며 기후변화 대응 감염병 매개체 거점센터의 구축을 통해 주요 매개곤충과 병원체 감염에 대한 감시사업을 통해 보다 많은 연구와 국내 실정에 맞는 방역대책 등이 개발될 것으로 기대된다[5].

이번 특집에서 다루어진 매개체 전파 감염병은 그동안 크게 주목받지 못했던 질병들이 많다. 그러나 최근 신종감염병

이 증가하고 있고 이 중 매개체 전파 감염병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이번 특집을 통해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들 질병에 대해 관심을 갖고 활발한 연구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 ORCID

Young Hwa Choi, <http://orcid.org/0000-0001-5254-3101>

## REFERENCES

1. World Health Organization. Vector-borne diseases [Internet]. Geneva: World Health Organization; 2017 [cited 2017 Jun 14]. Available from: <http://www.who.int/mediacentre/factsheets/fs387/en/>.
2. Bahk HJ, Lee DH. Domestic and international trend of vector-borne disease. J Korean Med Assoc 2017;60:451-457.
3. Yeom JS. Current status and outlook of mosquito-borne diseases in Korea. J Korean Med Assoc 2017;60:468-474.
4. Sul H, Kim DM. Present state and future of tick-borne infectious diseases in Korea. J Korean Med Assoc 2017;60:475-483.
5. Lee DK. Ecological characteristics and current status of infectious disease vectors in South Korea. J Korean Med Assoc 2017;60:458-467.